

## 94학년도 국어국문학과 학술답사 보고서

- 구비문학반 학술답사보고서
- 현대작가반 학술답사보고서
- 방언반 학술답사보고서
- 문헌반 학술답사보고서



## 구비문학반 학술답사보고서

### 1. 답사지역 및 조편성.

구비문학반은 1994년 5월 3일 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전남 진도군 일대에서 답사활동을 하였다. 이번 답사의 대상지인 진도는 무형문화재가 많이 배출된 소리의 고장이며 셋김굿과 다시래기 등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민속전통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었다.

답사를 가기 전날인 5월 2일에 발대식을 갖고 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이번 답사에 참가한 인원은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4명, 학부생 12명으로, 지도교수인 서대석 선생님과 조교 류준필을 합하면 모두 21명이었다. 답사활동의 편리를 위하여 3개조로 편성하였다.

1조: 서대석(지도교수), 최귀목(박사과정), 고정희, 정천구(이상 석사과정), 류하영, 윤경은, 이은주, 권우형(이상 학부)

2조: 류준필(조교), 정충권(박사과

정), 이지영(석사과정), 후지이 아사리, 김선아, 임지오, 박지우, 신서인(이상 학부)

3조: 최원오(박사과정), 손태도(석사과정), 김진환, 이승희, 정세라(이상학부)

### 2. 답사과정

5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에 모여서 진도행 고속버스를 탔다. 진도읍에 도착한 시간은 3시 30분. 지도교수로부터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는 바로 조별활동에 들어갔다.

1조: 4일부터 5일 이틀에 걸쳐 진도읍을 중심으로 다시래기 무형문화 보유자, 판소리 명창을 찾아다니며 조사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조사 후에는 진도의 풍광도 둘러보았다.

2조: 첫날인 3일 지산면의 소포리에 가서 여러 편의 민요를 채록하였고 다음날은 군내면과 고군면

에서 설화를 채록하였다.

3조: 4일 지산면에서 민요를 채록하고 5일은 조도면에서 진도의 셋김국의 무가를 채록하였다.

5일 저녁에는 각 조가 모두 해남에 집결하여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는 등 종합평가를 가졌다. 해남의 두륜산 밑에 있는 우리장 여관에서 모인 이 자리에는 김진세 선생님과 문헌반으로 활동한 민병수 선생님 외 4명(구본기, 김동준(박사과정), 이세신(석사과정), 구본현(석사과정)도 함께하였다.

6일 아침에 두륜산에 있는 대흥사까지 산행한 후 아침식사를 하고 서울로 출발하였다.

### 3.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

5월 13일 16시 1동 203호에서 학과 차원에서 전체평가회를 가졌다. 구비문학반은 최원오(박사과정)가 그 동안의 조사활동을 보고하였다.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진도군청, 진도문화원 등의 관계 기관 여러분과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채록에 응한 진도군민 여러분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 지면 관계상 채록된 자료 중 일부만을 수록한다.

진도군 지산면

<만가>

조사장소: 진도군 지산면 인지기 독치노인당

조사날짜: 1994. 5. 3.

선 소 리: 조공례(여, 70)

뒷 소 리: 설재립(남, 50), 김송숙(여, 53), 박복자(여, 54), 박종단(여, 52)

반 주: 김한규(남, 72)

조 사 자: 최원오, 손태도, 김진환, 이승희, 정세라

저녁에 지산면에 도착하여 조공례 할머니를 찾아가 민요 채록을 부탁하였다. 이에 조공례 할머니께서 마을 주민 10여명을 동원하여 민요 및 만가를 불러주겠노라고 했다. 조사팀은 독치노인당에 인공적으로 가창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요 및 만가를 채록할 수 있었다. 진도소리 가운데 만가가 가장 듣기 좋아 멀리서도 만가를 들으러 구경온다고 했다. 밤이 늦은 탓에 각 부분을 조금씩 노래했다. 이들은 만가가 11개의 노래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한국구비문학대계』(6-1, 전남 진도

군편)에 실린 자료에는 7개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장단의 바뀔에 따라 노래를 구분하고 있기에 생기는 현상이다.

## 1) 진염불

제~혜~에에~ 보~오오~살~  
 제~혜혜 혜혜에~에 보살~이로~고  
 ~나아~  
 나~무여~어허 허~허허~허 허허~  
 허허허허로고나  
 다~나~나 허~허허 허허로고나  
 나~무 나무여~아~미타아불~  
 등장가세~등장을~ 가~세  
 하나님전으~으~등장을 가~세~  
 제~혜~혜~보~오보살  
 제혜혜에~에 보살~이로고~나아~  
 나~무여~어허 허허허어~어허  
 어허~허허허허로고나  
 다~나~나 허~허허 허허로고나  
 나무 나무여 어허 아~미타아불

## 2) 중염불

나무야 나무야 나무나무야  
 나무뿌리가 새로아미 났네  
 나무야 나무야 나무나무 나무야  
 나무풀이가 새로아니났네  
 산에나무를 심고  
 유전유절이 길러여  
 고물고물이 단청일세  
 나무여 어허~ 나무나무나무야

나~무풀이가 새로아니났네  
 동으로 뺏은가지  
 목도보살 열리시고  
 남으로 뺏은가지  
 화보살열렸네  
 나무여어~허나무나무나무야  
 나무풀이가 새로아니났네  
 서으로 뺏은가지  
 금호보살 열리시고  
 북으로 뺏은가지  
 수보살열렸네  
 나무여~ 어허 나무나무나무야  
 나무풀이가 새로아니났네

## 3) 애소리

에~혜 에혜~에혜야  
 에혜에~ 에혜에 에혜야  
 에~혜~에혜에혜야  
 에혜에에~혜에혜~야야  
 어이를가리 어이갈거나  
 심산협로를어이를가리  
 에~혜에 에혜야야  
 에혜에~혜 에에혜~에혜야  
 바람도 수여넘고  
 날짐승도 수여넘는  
 심산협로를 어이를 갈거나  
 에혜에~에혜~에혜야야  
 에혜에~ 에에혜~ 에혜야야

## 4) 재화소리

재~화종~네 절~절절~시구나

명년~초상날에나  
 다시만나 보자세라~  
 재~화종~네 절~얼절~시고나  
 명년~초상날에나  
 다시만나 보자세라~

## 5) 하적소리

하적이야아~ 하적이로구나  
 새왕산 가지자고 하적을하네  
 하적이야 하적이로고나  
 새왕산 가지자고 하적을하네  
 살든집도 하적하고  
 부부일신도 하적하고  
 새왕산 가지자고 하적을하네  
 하적이야~하적이로고나  
 새왕산 가지자고 하적을하네  
 일가친척도 하적하고  
 동네방네도 하적하고  
 새왕산 가지자고 하적을하네  
 하적이야~하적이로고나  
 새왕산 가지자고 하적을하네

## 6)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재보살~재보살~  
 나무아미타불  
 어이갈거나 어이를갈고  
 나무아미타불  
 심산험로를 어찌갈거나  
 나무아미타불

안이없는 길이구나  
 나무아미타불

## 7) 다리천근

아아~혜 에헤요  
 아아혜 에헤요  
 천~근이야 천근이요  
 아하하 에헤요  
 아하하 에헤요  
 천근이야~야 천근이~요  
 깊은물에 다리를놓아  
 만공덕에 다로천근  
 아아하 에헤요  
 아아하 에헤요  
 천근이야 천근이요  
 동갑에천근 갑장에천근  
 천근천근에 쉬어가세  
 아아하 에헤요  
 아아하 에헤요  
 천근이야 천근이요~

## [대사]

불쌍허신 망세씨가  
 극락가고 시왕갈제  
 꽃꺼어 머리에꽃고  
 좌상부채 품에안고  
 염불로 양석삼아  
 활활한 궁궐안에  
 극락새왕 가시는길을  
 천근없이 어이를가리  
 천근이야 천근이야  
 천~근~이요

아아하 에헤요  
 아아하 에에요  
 천근이야~ 천근이요  
 앞진운명은 쉬어가고  
 송진운명을 쉬어가세  
 아아하 에헤요  
 아아하 에헤요  
 천근이야~ 천근이요  
 무탁앞숙은 쉬어가고  
 상발원에 쉬어가세  
 아아하 에헤요  
 아아하 에헤요  
 천근이야~ 천근이요  
 지절에천근 인정에천근  
 시주천근에 어서가세  
 아아하 에헤요  
 아아하 에헤요  
 천근이야~ 천근이요

8) 관음보살  
 하나님보살  
 하나님보살  
 세상천지 만물중에  
 하나님보살  
 사람백성이 또있든가  
 하나님보살  
 여보시오 시주님네  
 하나님보살  
 이내말씀을 들어를보소  
 하나님보살  
 이세상에 나온사람

하나님보살  
 누구네절로 나왔든가  
 하나님보살

9) 다구질소리  
 (중머리)  
 어허~  
 어허~  
 어~이여어 여이여루  
 가~래~로~세  
 어이여어~여이~여루  
 가~래~로~세  
 나무가래는 칩줄올매고  
 쇠가래는 쇠줄올매고  
 어이여어~ 여이~여루  
 가~래~로~세  
 금가래는 금줄올매고  
 은가래는 은줄매고  
 이어여어~ 허허여루  
 가~래~로~세  
 참득오는 쉬지말고  
 높은데를 밀어다가  
 지픈데를 도다가서  
 다가나보세  
 어이여어 여여여루  
 가~래~로~세

(10) 다구질소리  
 (중중머리)  
 어이여어 여루여루 가~래~로세  
 어이여어 여이여루 가~래~로세

앞에앞주산 바라보니  
 노적봉이비쳤네  
 대대장사도 날명당  
 어이여루 여이여루 가~래~로세  
 옆에옆주산 바라보니  
 문필봉이비쳤네  
 대대문장도 날명당  
 어이여루 여이여루 가~래~로세  
 뒤에뒤주산 바라보니  
 노인봉이 비쳤네  
 수명장수도 활명당  
 어이여루 여이여루 가~래~로세

(11) 대구질소리  
 (찾은증모리)

어기여 청청 가래요  
 어기여 청청 가래요  
 앞청청산 깊은골  
 어기여 청청 가래요  
 두계비업도 다과보세  
 어기여 청청 가래요  
 해도밝고 달밝은데  
 어기여 청청 가래요  
 해달업도 다과보세  
 어기여 청청 가래요  
 액매기쟁쟁 요란헌데  
 어기여 청청 가래요  
 해달업도 다과보세  
 어기여청청가래요  
 어기여 청청 가래요~

---

## 현대작가반 학술답사 보고서

---

### 1. 결단식 및 편성

1988년, 1990년, 1991년, 1992년  
 그리고 1993년에 이어 6번째로 시  
 도된 현대작가반의 학술 답사는  
 1994년 5월 2일 월요일 16시에 1동  
 203호에서 예비모임 및 결단식을  
 가지고 조편성 및 임무분담을 하였  
 다. 이 자리에서 이번 학술답사의  
 대상 작가인 김영랑과 황지우 및  
 이청준의 고향인 전남 강진·해남

일대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  
 다. 현대작가반의 조편성, 조사대상  
 은 다음과 같다.

#### # 편성

지도교수 : 조남현 선생님

담당교교 : 한상규

참가자 : 박사과정 4명, 석사과정  
 14명, 학부과정 12명. 문흥술, 금동철,  
 방민호, 김동식(이상 박사과정), 서재  
 길, 박현수, 배개화, 김윤정, 전봉관.

윤대석, 곽명숙, 고하영, 이강수, 노세경, 강명효, 임재서, 홍혜준, 우정권(이상 석사과정), 서형범, 김승구, 김주리, 박주현, 서진영, 김정곤, 이수형, 이용균, 김원기, 안희재, 이지영, 최혜림(이상 학부과정)

#### # 답사기간

1994.5.5. - 1994.5.7. (2박 3일)

# 조사 대상 작가 : 김영랑 및 남도 작가들

# 조사 대상 : 전라남도 강진군 및 해남군 일대

## 2. 본조사 및 일정

5월 5일 서울 반포 뉴코아백화점 구관 정문에 집결하여 당일 8시 전세 버스편으로 1차 조사 대상지인 전라남도 강진으로 출발하였다. 오후 1시 30분 강진에 도착하여 일차로 다산초당 및 백년사를 도보로 답사하였다. 오후 4시 30분 강진읍으로 이동하여 영랑생가를 답사하였다. 그곳에서 영랑의 생애와 문학에 대한 간략한 토론을 한 후, 오후 5시 30분 해남으로 출발하여 대홍사 앞 숙소에 도착하였다. 8시 서형범의 「영랑연보」와 윤대석의 「전라도 토착지주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난 뒤, 교수님과 학생들간에 김영랑 문학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대

홍사에서 1박.

5월 6일 아침 대홍사를 답사하고 점심식사 후 윤선도 유적지 녹우당으로 출발하였다. 오후 2시 녹우당에 도착하여 고산기념관과 윤선도 고택을 답사하였다. 오후 4시 녹진으로 출발, 임진왜란 전승기념관을 답사하고 오후 6시 숙소에 도착하였다. 오후 8시 문홍술의 「말의 소리화, 그 뿌리로서의 남도」라는 주제발표를 듣고 '남도 문인'들이라는 주제로 토론하였다. 녹진에서 1박.

5월 7일 10시 30분 녹진에서 고속버스로 귀경하여 현지에서의 답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3. 문학 토론회 내용(지면 관계상 요지만을 추린다.)

#### # 첫날(5월 5일) 주제발표

1) 서형범: 永郎 年譜

생애: 영랑은 1903년 1월 16일, 全羅北道 康津郡 康津邑 南城里 221번지에서 5백석 지주인 金鐘湖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남성리 일대는 농업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조용한 농가부락이었으며, 집안이 김해 김씨 가문의 지주였기에 영랑은 엄격한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도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康津에서 1915년 보통학교에 다니

다가 1917년 徽文義宿에 입학한다. 5년제였던 휘문의숙에는 바로 윗학년에 月灘이 있었고 그 윗학년에는 夕影 安碩柱와 露雀 洪思容이 있었으며, 영랑 바로 아래에 鄭芝容, 李瑄根 등이 있었으며, 그 아래 학년에 尙虛 李泰俊이 있었다. 중간 정도의 성적과 교우관계를 유지하던 영랑은 기미년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 후 학업을 중단하고 하향하여 만세운동을 모의하다가 체포된다.

15세가 되던 해 집안에서 정해준 규슈와 결혼을 했으나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상처한다. 23세때 金貴蓮과 재혼하게 되는데, 부인 김귀련은 상당히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영랑은 그런 부인과 함께 엄격하게 자식들을 가르쳤다. 부인에 대해서도 무척 보수적으로 대하여 가정의 권위를 세우려 했다 한다.

일본으로 건너가 아오야마 학원에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영랑은 서울로 자주 왕래하며 친우들과 교류를 가졌다. 해방과 함께 康津에서 대한독립촉성회 단장으로 활약했으며 1948년 초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서울에 올라와 잠시 공보처 출판국장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그의 직장

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가산이 유족하여 굳이 직장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탓이다.

文壇活動: 龍兒 박용철의 권유로 시를 쓰기 시작한 영랑은 1930년 『시문학』지 발간과 함께 새로운 시운동을 전개한다. 영랑은 芝容, 龍兒와 함께 한국의 순수시 개척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토속적인 발상과 전라도 사투리의 구사가 일품인 시작을 남겼다. 『시문학』 창간호에 「동백넙에 빛나는 마음」, 「언덕에 바로 누워」,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四行小曲 七首」, 「除夜」, 「쓸쓸한 뒤편에」, 「원망」 등 13편을 발표하였고, 『시문학』이 3호로 종간되는 동안 20여 편의 시를 발표했다. 계속해서 『문학』지에 시를 발표하였고, 영랑의 시가 50여 편에 달하자 박용철은 『영랑시집』 간행을 서둘러 1935년 11월 5일 시문학사에서 아담한 시집 『영랑시집』이 출판되었다. 그 뒤 『영랑시선』(1949.10. 중앙문화협회 刊, 未堂의 跋文), 『영랑시선』(1956.5.28. 正音社 刊, 李軒求 跋文), 『영랑시집』(博英社 刊) 등이 출간되었으며 최근에도 영랑의 대표작들을 모은 시선이 여러 출판사에서 간행되어 그에 대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꾸준한 사랑을 받는 까닭은 그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호소력이 강한 탓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교우관계: 龍兒 朴龍喆 : 일본 아오야마 학원 유학시절 사귀게 된 사 이로 결혼 후 고향에 내려와 살던 영량은 용아와 서신교환 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 한다. 두 사람은 우정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용아가 추천한 『시문학』의 가장 큰 지원자로 영량이 자리하게 된다. 용아는 영량의 詩才를 높이 보고 자신 보다 나은 시인임을 겸허히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영량의 시집 발간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영량의 대부분의 작품을 용아가 압송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李軒求와는 주로 문학적인 이야기가 오갔던 첫만남 이후 집이 인접한 까닭에 자주 어울렸다고 한다. 徐廷柱의 경우 영량을 '육친의 형'이라 지칭할 만큼 따랐으며 영량의 제1시집의 발문을 쓰게까지 되는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 이 외에도 윌탄, 이산, 함대훈 등과도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성격 및 취미 그리고 죽음: 영량은 172cm 키에 능률하면서도 섬세한 귀골이었다고 한다. 휘문의숙 시절 축구를 잘했으며 집에서 정구를 즐겼다고 한다. 한편 거문고와 복을 벗삼아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수준급으

로 부르기도 했다 한다. 고전음악이나 서양음악이나 음악이라면 모두 즐겼으며 명랑하고 호탕한 성격으로 지내고 있었다 한다. 그는 집을 나설 때면 늘 한복을 입었고 봄에는 제복, 겨울에는 밤색 양복 그리고 여름에는 모시옷을 즐겨 입었다 한다. 그때 그의 모습은 꼭 시골 면장의 모습 그대로였다. 또한 민족적 비애에서 답답함을 풀기 위해 술을 자주 마셨으나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았다. 한편 30세부터는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렸다고 한다. 자기 집안에 60을 넘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데 따른 강박관념과 첫 부인이 1년도 넘기지 못하고 죽은 것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감상적인 성격에 눈물이 많았고 종교는 없었지만 아오야마 학교의 기독교적 교풍을 수용했을 것이며 일어와 영어를 잘 사용했던 영량은, 그러나 일본어로 쓴 시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영량은 전쟁이 일어나자 서울 장충동에 있는 친척집에 은신해 있다가 9월 27일 포탄파편으로 복중에 중상을 입고 9월 28일 서울수복과 함께 부상당한 채 본가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47세를 일기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전쟁으로 무질서했기에 장충단 공원 근처의 공터에 묻혔다가 54년 11월 4일 망우리로 이장했다.

2) 윤대석: 전라도 토착 지주의 세 계관

김영량은 30년대 카프의 편내용주의에 반발해 시의 순수성을 추구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해외문학파들이 카프에 반대하여 문단에 들어와 있었던 30년에 영량은 『시문학』에 열세 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장한다. 김영량의 시는 '순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순간'에는 역사나 사회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오직 순간의 아름다움과 황홀감이 그의 시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이러한 순간이 모란이 피어 있는 기간으로 상징된다. 일년 삼백 예순날은 순전히 모란이 피는 잠시 동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시인의 보람도 그곳에 멈추고 만다. 따라서 모란을 조국의 은유로 파악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모란이 피는 동안만이 살아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며 시인의 존재근거가 되며 그 이외의 삼백예순날은 단지 섭섭해 울 뿐이다. '순간속에 존속하다가 소멸해야 하는 지상적 아름다움', '삶의 심미적 도취의 순간을 열어주는 부서지기 쉬운 황홀'로 표현되는 그 순간은 그것이 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것을 위해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삼백예순날이 허비되어야만 획득되는 가치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슬픈 것이면서도 찬란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의 좌절의 미학, 순간의 유희주의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김영량의 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그가 오랫동안 고향에 머무른 사실이 간과될 수 없다. 그는 재혼한 해인 25년 이후 해방 때까지 고향 강진에 머물렀다. 또한 그가 상경한 16년 이전의 기간을 합친다면 그의 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특히 詩作활동 기간의 대부분을 강진에서 보낸 셈이 된다. 김영량은 500석을 추수하는 지주집안이어서 그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강진 생가에서 모란 삼백 그루를 손수 키우고 즐겼다는 것이나 집 옆에 정구장을 만들어 정구를 즐겼거나 기생을 불러 남도민요, 잡가 등을 즐겼다는 것, 거문고나 북을 잘 다루었다는 것 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유희자적인 생활은 김영량 시의 여유로움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강진 특유의 자연환경이 미친 영향도 있을 것이다. 강진은 해양성 기후라서 사철 온난하고 비가 유달리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영랑 시에 나오는 바다나 섬, 비, 대나무, 동

백, 모란 등은 강진의 시적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진에서의 생활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남도의 방언이다. 이것 때문에 북의 소월에 대비되곤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랑의 전라도 말은 가난, 고통의 전라도 말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의 여유있는 말이라는 점이다.

김영랑 시를 논하는 자리에서 흔히 '나', '마음'의 사용이 빈번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나는', '나의', '내', '나'가 61번이 등장하며 '나의' 변용이라 할 수 있는 '마음'이 51번, '가슴'이 5번 등장한다. 김영랑의 시에서 '내마음'은 밝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슬픔이나 눈물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생존의 진실성과 가치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 자아의 내면에 있는 것이라면 외계는 무가치한 잡동사니의 연속, 따분하고 무의미한 일상성이 된다. 외계는 거대하고 어두운 공동, 결핍 또는 부재의 상태로만 나타난다. 여기서 소실된 외계의 자리는 <없음>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세계는 내마음만이 존재할 뿐이며 타자의 존재는 무시된다. 타자가 존재하는 방식조차도 내마음의 일부로 존재하는 형식을 띤다. 영랑이 '아! 그러다/ 내혼자마음 날같이 아

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내 마음 아실이,')라고 했을 때 이미 그는 타자와의 대화공간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 문학상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방식, 세계관이다. 계몽주의와는 달리 낭만주의는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중세적 종교나 봉건사회에서 영광을 꿈꾸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개인의 소작이 아니라 민중의 무의식적 공동 소작이라는 점에서 민족문학을 발굴하는 동시에 천재에 숭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김영랑에게 있어 남도민요나 잡가 등이 그것을 생산한 계급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서 차용되었다기보다 탐미의 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김영랑에게는 계몽주의자, 즉 근대주의자인 임화, 김기림, 최재서 등이 가졌던 '새것 콤플렉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착 지주인 김영랑에게 중요한 것은 새것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려는 것, 즉 강진의 자연을 완상하는 '내마음'과 육자배기를 불러제끼는 것이다. 이미 획득되어 있던 경제적 사회적 소유를 누리면서 그것이다만 소비에 그칠 때, 그래서 <일>을 통한 삶의 유기성이 손상될 때, 혼

히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섬세한 취미의 세련과 도락에의 몰두인 것이다. 삶이 세계와 이어지지 못하고 그 자체로 고립되고 자족적인 것은 어떤 식이든 노동으로 세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아의 한 모습인 것이다. 김영랑에게 나타나는 순간에의 도취, 자아에의 몰두, 민요에 대한 취미 등은 그가 토착지주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의 자족적인 시세계는 외부와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러한 단절로 인한 결핍을 자연을 내면화함으로써 해결하려 한 것이 김영랑의 시인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김영랑은 강진에서 독립 축성회 단장으로 활약하고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는 등의 일은 토착지주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와 문화의 분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을 때와 토착지주 중심의 국가가 건설되는 시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는 시문학파가 주장하는 순수서정시라는 것이 역사를 초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느 유과들보다 더 강하게 역사나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 들쨍날(5월 6일) 주제 발표

1) 문홍술: 말의 소리화, 그 뿌리로서의 남도 —「이청준 잃어버린 말

을 찾아서」(지면관계상 제1장만 실는다.)

이청준(1939-)의 작품들은 크게 두 계열로 분류될 수 있다. 도시를 배경으로 하여 폭력적인 사회체계에 의해 상처받는 개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과 작가의 고향인 남도(장흥)를 중심으로 하여 펼쳐지는 소리의 삶의 애환을 그린 작품들이 그것이다. 이청준의 수많은 작품들은 양 극단을 이루는 두 계열체의 상호작용의 진폭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 양 극단이 충돌하여 용해되면서 그의 작품세계의 원형질을 보여주는 작품이 연작형 장편 소설 『잃어버린 말을 찾아서』(문학과 지성사, 1981)이다.

자서전 작가 윤지옥이 있다. 그는 이 시대의 '말'이 그 본질을 상실한 채 유명처럼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 같은 말'을 찾아 대흥사 경내의 일지암이라는 암자를 찾아간다. 원래 말은 '존재의 집이고 말의 집은 존재의 실체였다'. 그런 말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존재의 집'이라는 '고향을 상실한 채 정처없이 떠도는 말', 곧 '삶의 동네에서 떠나 버린 말, 죽어 냄새로 떠돌아 다니는 말'로 전락했다.

윤지옥은 그런 말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아직도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말, 믿음을 지니고 살아 있는 말, 을 갈망한다. 그것을 그는 「81세의 나이로 입적한 초의 스님의 차마심의 마음」과 「장님 여자의 남도 소리창」에서 찾게 된다. 초의 스님의 차마심의 마음은 「형식적인 법도를 버리고 마음대로 차를 마실 수 있는 마음」이다.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다도의 형식과는 무관하다.

진정한 차마심은 「남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세상사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차마심이다. 그것은 정신에 의한 차마시기이자, 「자신의 내면을 향한 사유」를 담은 차마시기이며, 그것이야말로 「말 같은 말」의 본질이다.

차와 물이 조화를 이루듯이 인간 정신과 말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 같은 말」이다. 「지상의 모든 가난은 사회 사업가들의 입술 위에 있고, 조국의 백년 대제는 교육자와 청년 운동가들의 입술」 위에 있는 시대의 말은 인간 정신과 괴리된 말이다. 그것은 정신이 죽은 빈 껍데기의 육체뿐인 인간들, 가시적인 현상과 그 형식에 얽매어 그 너머에 있는 삶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들, 그들의 훼손한 지결임과 무

책임한 발설로 인해 실체를 잃고 유령처럼 떠돌아 다니는 말이다. 이러한 유령화된 말들은 6.25와 5.16과 4월의 광주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지배와 피지배라는 보편적인 사회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 원인이야 무엇이든, 문제는 삶에 대한 고뇌와 진실, 믿음과 정신이 배제된 유령화된 말들이 이 시대의 사회와 개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런 말들이 「자신이 겪어 온 혹사와 학대와 인간 배반에 대하여 복수를 펼친다」는 점이다.

유령화된 말을 본래의 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말에 인간 정신과 순결한 영혼을 불어 넣어야 한다. 순결한 정신이 들어 있는 말, 삶의 진실과 그 고뇌가 들어 있는 말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본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마음(정신)에 의한 차마심과 장님 여자의 소리창이다.

#### 4. 전체 평가 및 해단식

5월 13일 16시 1-203에서 전체 평가회 및 해단식을 가졌다. 여기서 석사과정 전봉관이 현대작가반의 활동 상황을 보고했다.

## 방언반 답사 보고서

방언반은 1994년 5월 3일(화)부터 5월 6일(금)까지 3박 4일동안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 일대의 방언을 조사하였다. 참가자 20명이 여섯조로 나뉘어 옥구군 탐동을 비롯하여 주요 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의 조편성과 조사지점은 다음과 같다.

### (1) 조편성

1조 : 활용조사반

조장 : 최명옥(지도교수)

조원 : 이은섭(석1, 부조장), 이진호(학4)

2조 : 종결어미조사반

조장 : 김옥화(박1)

조원 : 안은숙(석2, 부조장), 안희제(학2), 오영주(학3)

3조 : 연결어미조사반

조장 : 정인호(석2)

조원 : 최형강(석1, 부조장), 이상신(학3), 최유진(학2)

4조 : 어휘조사반

조장 : 구본관(조교)

조원 : 이재희(석1, 부조장), 신난타(학4)

5조 : 음운조사반

조장 : 한성우(석1)

조원 : 최형용(학4), 남수경(학2)

6조 : 경어법조사반

조장 : 김진형(석2)

조원 : 박재연(학3), 정의열(학2)

### (2) 일정

제 1 일 : 5월 3일 (화)

08:40 서울역 집결

09:05 서울역 출발

11:57 이리역 도착

13:30 대야면 도착

12:00- 현지조사(대야면 라궁, 접산, 탐동 등)

21:00- 평가회 후 취침

제 2 일 : 5월 4일 (수)

09:00- 현지조사(대야면 라궁, 접

산, 탑동 등)	11:35 이리역 출발
20:30- 전체 평가회 후 조별 모임	14:30 서울역 도착
22:00 취침	15:00 해단식 후 해산

제 3 일 : 5월 5일 (목)	질문지는 이번 답사를 위해 활용.
09:00- 현지조사(대야면 라궁, 접	어미, 어휘, 음운 편으로 나누어 작
산, 탑동 등)	성하였으며 이에 의거해 자료를 수
19:00 전체 평가회 및 회식	집하였다. 이 외에 조사 과정에서
제 4 일 : 5월 6일 (금)	적절히 항목을 첨삭하여 조사를 실
12:20 대야면 출발	시하였고 자연발화를 가능한 한 많
	이 채록하려 노력하였다.

## 문헌반 학술답사 보고서

문헌반은 1992.5.4.(수)부터 5.6.(금)까지 2박 3일 동안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시, 영풍군 일대에서 답사 활동을 하였다. 이번 답사의 주목적은 7서언해를 해서 후대의 언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기록이 전하는 眞一齋 柳崇祖(1452-1512)의 사당에 남아 있는 문헌들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답사의 준비작업은 <眞一齋文集>과 柳崇祖와 관련된 여러 문헌의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문헌반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번 답사에는 특별히 종교학과의 금장태 선생님께서도 동행을 해 주셨다.

- \* 지도교수: 이병근, 권두환, 이현희 선생님
- \* 정승철, 조해숙, 박진호, 정인숙, 황선엽.

5월 4일 오전에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같은 날 오후 영주역에 도착한 일행은(금장태 선생님께서는 다음 기차를 타고 오셔서 약 한 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셨다) 곧 버스편으로 봉화읍으로 향했다. 봉화읍에서 眞一齋의 후손으로 사당을 관리하는 분들을 만난 후 걸어서 사당에는 오후 4시경에 도착하였다. 이후 약 5시간여에 걸쳐 사당에 소

장되어 있는 백여 권의 문헌과 수십여 종의 문서류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애초에 기대했던 柳崇祖 자신의 언해류는 보이지 않았고 후대에 嶺營에서 만든 언해류 몇 종만이 남아 있었다. 이 날은 봉화읍에서 숙박을 하였다.

다음날인 5일에는 다시 영주로나와 柳崇祖의 후손으로 문헌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분의 덕으로 갔다. 그 덕에는 <御製警民音>, <增修無冤錄諺解>와 몇 편의 <綸音諺解> 등의 자료가 있었으나 귀중본이라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 날 오후 일행은 버스를 타고 영풍군에 있는 부석사를 찾아 갔다. 676년 義湘이 세웠다고 하는 이 절에는 무량수전(국보 18호)과 조사당(국보 19호) 외에도 국보 3점과 보물 3점이 있었다. 그러나 보물 735호인 고려각판이나 이 절에 있는 문헌들은 볼 수가 없었다. 이 날은 부석사 밑에서 숙박을 하였다.

답사의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아

침 9시경 부석사를 출발하여 영주로 오다가 소수서원에 들었다. 1541년(중종 36년)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서원에서 출발한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사액서원 중에서도 최초의 서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晦軒影幀(국보 111호) 외에 보물 2종과 141종 563책의 장서가 있다고 하는데 장서의 경우는 전시실에 있는 몇 점을 제외하고는 열람할 수가 없었다. 소수서원을 둘러본 일행은 영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번 답사에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문헌반의 답사를 통해 아직 민간에 소장된 자료가 상당히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 유산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평가와 해단식은 다른 답사 반들과 같이 하였다.